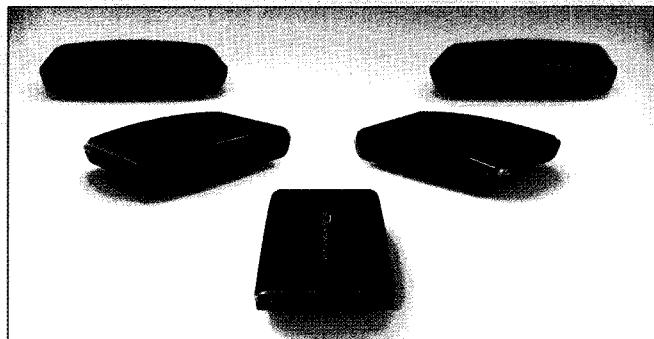


Venture Focus

한국인포콤, 하이패스 초슬림 단말기 Hi-1200 출시

톨게이트 무정차 통과와 요금 할인 등의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이패스에 슬림형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하이패스 전문제조업체 한국인포콤(대표 양광모, www.kinfocom.com)은 지난 28일 하이패스 단말기 Hi-1200을 신규 출시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Hi-1200은 7만 7,000원의 초저가형 금액으로 출시, 그동안 비싼 금액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i-1200은 기존 단말기보다 초슬림형으로 출시되어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다른 자동차가 요금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달리 전용 도로로 내 달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이라면 자동차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20~50%까지 요금 할인도 가능하다. 2008년 10월에 누적 보급대수 160만대를 돌파했다. 한국인포콤 서완실 이사는 “지금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는 기능면이 강조되었으나 이제는 디자인 경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국인포콤은 하이패스 단말기 시장에서도 슬림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여 초슬림형 제품을 부담없는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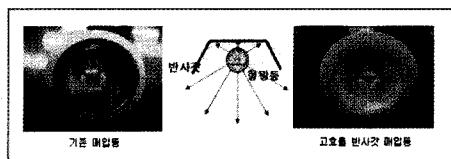
소프트포럼, XecureCrypto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필 획득

유비쿼터스 보안 전문기업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 www.softforum.com)은 자사의 암호모듈인 'XecureCrypto V1.2.3.0'이 국정원이 실시하는 암호 모듈 검증필을 획득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암호검증제도는 국가기관 도입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의무화 시행으로 올해 1월부터 암호 기능을 구현한 정보보호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국정원의 암호검증을 통과한 암호모듈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국가행정망 구축에 들어가는 암호모듈의 안전성을 평가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국가 중요 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검증을 받은 XecureCrypto는 기준에 맞게 재 검증을 실시한 첫 번째 라이브러리로써, 국내 업체 중 최초로 검증필을 확보하여 이번 재검증을 통해 기존의 암호모듈 보다 더 고도화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박원규 소프트포럼 S/W사업본부장은 “이번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획득은 소프트포럼의 암호화 기술의 우수성을 재차 검증 받은 것”이라며, 덧붙여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시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포부를 밝혔다.

JCI 디스플레이, 친환경 고효율 반사갓 리플렉트올 개발

JCI 디스플레이(대표 윤재동, www.jcidisplay.com)는 최근 친환경 고효율 반사갓 리플렉트올(Reflect All)을 개발했다. 기존 조명 기구가 빛을 뒤편으로만 방출시켰던 것과 달리, 리플렉트올(Reflect All)은 빛을 효과적으로 전면 반사시켜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조명기구에서 중요한 것이 반사갓이다. 반사갓의 반사율에 따라 빛의 밝기인 조도가 차이 난다. 기존의 천정 부착



용 매입등 반사갓의 반사율은 약 78%다. 그에 반해 JCI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리플렉트올(Reflect All)의 반사율은 97~99%다. 반사율의 차이는 20%이지만, 매입등 안에서 빛의 반사 횟수가 많아 조도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즉, 고효율 반사갓을 이용하여 기존의 조도와 같게 하면 전기료가 1/3로 줄어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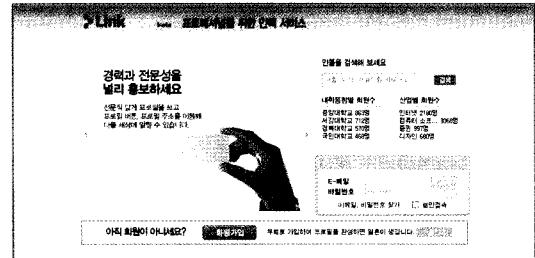
전국의 형광등과 간판의 반사판을 고효율 반사갓으로 교체할 경우, 예상 절감 소비전력은(전구형 형광등, 형광등, 간판 등 포함) 총 31,190,000MWh에 달하며, 이를 전력요금으로 환산하면 절감 비용은 연간 총 2조 22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총 원전 생산량의 20%이며, 원자력 발전소 4개를 가동한 양과 맞먹는다.

리플렉트올(Reflect All)의 개발자인 JCI 디스플레이의 윤재동 대표(공학박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6.9% 정도로 선진국의 1.5% 증가율을 상회하며, 세계 석유 소비 7위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10위의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이번에 개발한 고효율 반사갓은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대형 간판까지 반사갓의 교체만으로도 확연하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링크나우, 차별화된 유료 인맥 서비스 개시

비즈니스용 인맥 서비스인 링크나우(대표 신동호, www.linknow.kr)가 새해부터 차별화된 유료 인맥 관리 서비스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링크나우 비즈니스 회원은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인물을 검색할 수 있고, 메시지를 회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의 상세한 프로필을 볼 수 있다. 또한 내 프로필 방문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회원은 인물을 검색하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신의 인맥으로 제한된다. 또한 일반 회원은 인맥이 가까운 회원의 프로필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인맥이 먼 회원의 프로필은 요약된 내용만 볼 수 있다. 일반 회원은 신용카드를 통해 비즈니스 회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3개월짜리와 1년 짜리 두 종류가 있으며, 요금은 각각 19,800원과 66,000원이다.

링크나우 신동호 대표는 “광범위한 인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이 서비스는 유용한 비즈니스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기능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의 매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크루트, 3가지 불황기 맞춤 서비스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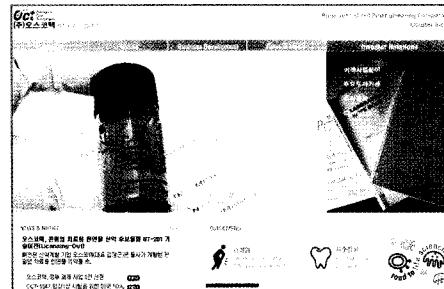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t.com)는 불황 구직자들과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불황기 취업지원 3종 세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크루트 고용지원서비스’, ‘인크루트 이력서서비스’, ‘인크루트 취업활동증명서 서비스’ 등 세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크루트 고용지원서비스’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대상자에게 빠른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이 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구직자일 경우 인크루트 이력서 상에 ‘고용지원금 대상’ 항목에 체크를 하면 개인의 이력서에 지원대상자임이 표기되고, 기업은 인재검색 서비스를 통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쉽게 찾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인크루트 이력서서비스’는 현재 직장의 경력은 살리면서 회사 이름만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력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인크루트 취업활동증명서 서비스는 본인이 해 왔던 취업활동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신청 과정 중 번거로웠던 일 하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Three separate promotional banners for InCrut's services. The first banner on the left is for 'High-Salary Job Seekers' (하나), the middle one for 'Job Seekers' (둘), and the third one on the right for 'Job Seekers' (셋). Each banner contains text describing the service, a small screenshot of the service interface, and a 'View Service Details' button at the bottom.

オスコ텍, ‘대사성 골질환 치료제’ 국내 특허 취득

뼈전문 신약개발 기업 오스코텍(대표 김정근, www.oscotec.com)은 골다공증 및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 가능한 뼈흡수억제제 ‘OCT-SG815’ 관련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오스코텍은 이번에 특허 등록한 OCT-SG815가 뼈 파괴를 억제, 대사성 골질환의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신약 후보 물질이라며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예방 및 치료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는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Osteoblast)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OPG(Osteoprotegerin)를 조절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분화를 막아 골밀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허를 받은 OCT-SG815로 신약을 만들면 기존 치료제가 가진 소화기관 관련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복용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OCT-SG815가 저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 경구용으로 약을 만들 수 있어 복용이 간편하며, 제품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뼈의 파괴는 파골세포의 뼈 흡수기능 과다로 인해서 발생한다”며 “OCT-SG815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신약이라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기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작용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세계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102억 달리이며, 연평균 12%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2,000억 원으로 매년 약 20%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디오텍, 노사발전재단 주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선정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디오텍(대표 도정인, www.diotek.co.kr)은 노사발전재단 주관 2008년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인증 사업의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인증 사업은 임금, 근로조건, 복지제도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이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노사문화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제안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 설립된 민간기구다. 디오텍은 단체 보험 가입,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콘도 이용, 동호회 지원, 휴직 제도, 근로자 위탁 교육, 채용 장려금 지급, 회사 식당 운영 등의 높은 복리 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제와 우리사주제의 도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의무 시행에 앞서 주 5일제를 조기 도입한 바 있으며, 매년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 직원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디오텍은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 성별, 학력, 결혼여부, 장애, 지방 대학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경영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이 30%에 달하고, 이중 기혼 여성이 1/3에 이르는 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승진이나 보수는 물론 육아 휴직, 생리 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다.



코난테크놀로지-인포섹,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품개발 협력

개인 데스크톱에 존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원격에서 검색 후 삭제함으로써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개발된다. 검색솔루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선, www.konantech.co.kr)와 종합정보보호기업 인포섹(대표 김봉오, www.skinfosec.co.kr)은 개인정보를 원격 탐지 및 삭제하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 개발을 위한 양사의 협력은 사용자 PC 내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데스크톱 검색기술로 찾아내고, 탐지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원격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IT보안 커플라이언스 시장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 기업 전산환경에서 IT보안 커플라이언스를 도입하려는 요구가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산업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 정보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검색솔루션 전문개발사인 코난테크놀로지와 종합정보보호기업인 인포섹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안철수연구소, V3 365 클리닉 고객 '사랑의 쌀' 나눔 펼쳐



글로벌 통합보안 기업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는 지난 21일 오후 V3 365 클리닉 PC주치의를 구매하는 고객의 이름으로 쌀 1kg를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쌀 360kg과 꿀 10박스를 방학2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한 달간 V3 365 클리닉 웹사이트에서 실시됐으며, PC주치의 구매 고객 36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안철수연구소 PC주치의들과 사내 봉사 동아리 '빛드리' 회원들은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컴퓨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복지관 내 PC 점검 및 수리, V3 Lite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기업 이념에 따라 IT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및 컴퓨터 백신 지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후원,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터 캠페인', '아름다운 토요일' 등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손안에 패션쇼~

씨드솔루션텍 '여성을 위한 패션쇼' 모바일서비스



'여성을 위한 패션쇼' 모바일 서비스 화면

휴대폰에서 42#42 누르면 최신 패션트렌드가 한눈에!

모바일 솔루션 및 컨텐츠 제작전문 (주)씨드솔루션텍(대표 나성욱, www.ss-tech.co.kr)이 패션전문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했다. 휴대폰 사양의 변화에 맞춰서 VM, CBS, RFID, USIM의 솔루션을 활용한 각종 컨텐츠 및 Taxi 알림 서비스 등을 개발해 온 씨드솔루션텍은 무선망 개방에 따른 오픈넷 등장에 발맞춰 여성전문채널인 GTV와 손 잡고 '여성을 위한 패션쇼'라는 패션전문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여성을 위한 패션쇼'는 국내 및 해외 패션쇼 정보를 과거부터 현재 2009년까지, 시즌별로 봄여름, 가을겨울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패션쇼의 경우 밀라노컬렉션, 프레타 포르테 파리에 참가했던 구찌, 아르마니,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유수 브랜드 스타일을 시즌별로 볼 수 있으며 시즌별 패션전문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패션의 경우 패션쇼에 직접 모델로 참가한 연예인의 정보 및 디자이너 별로 패션스타일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패션쇼 및 여성채널 GTV의 다양한 프로그램 동영상을 서비스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위한 패션쇼'는 방대한 패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 검색기능을 갖췄으며 '트랜드 뷰' 메뉴에서는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의 설명 및 패션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패션쇼'는 휴대폰에서 42#42를 누르고 무선인터넷 키(Nate, Show, ez-i) 버튼을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에듀윌, 탈북청소년학교인 '셋넷학교'에 검정고시 무상교육 지원



월은 2005년부터 셋넷학교에 지속적으로 검정고시 무상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에듀윌 양형남 대표이사는 "그 동안 지원 사업의 결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어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에듀윌의 검정고시 학습 노하우와 셋넷학교 자원교사들의 열정이 합쳐 2009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정고시 등 자격증·고시 전문 교육기업인 (주)에듀윌(대표 양형남, www.eduwill.net)이 지난 13일 탈북청소년학교인 셋넷학교를 방문해, 검정고시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강의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6년간 반딧불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의 청소년 보호관찰소와 법무부 산하 소년원, 탈북 청소년 단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셋넷학교는 그 성과로 대입응시자의 87.5%가 합격하고, 고입은 86%가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셋넷학교는 탈북 청소년의 낭만사회 문화적응과 현실 정착을 돋는 목적으로 2005년 2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셋넷학교 재학생들의 낭만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학력인증의 일환으로 국가검정고시를 준비해 왔고, 이에 에듀